

생명윤리 특강

세계관과 생명윤리 1

이상원

연재 순서

I. 세계관과 생명윤리

II. 세계관과 생명의 시작점

III. 세계관과 생명의 종결점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인간이 다른 동물들로부터 구분되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동물들은 물질의 세계를 움직이는 내재적인 원리들 안에 갇혀서 그 원리들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인 반면에, 인간은 물질세계 밖에서 물질세계 전체를 자유롭게 조망하면서 그 의미를 묻는 존재라는 점이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범주 안에 물질의 세계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여 일정한 체계를 세우고 그 체계를 통하여 세계를 해석하고 세계의 의미를 묻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는 어디서 기원했으며, 어떤 힘과 원리에 의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념적 틀이 곧 세계관이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세계관이며, 마르크스주의라든가 진화론처럼 유사종교를 지향하는 모든 이념들도 세계관이다.

세계관과 윤리의 상관관계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에 대한 정의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이 다양한 정의들의 핵심에는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 여부를 비판적으로 따져 보는 작업이라는 레드라인(redline)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세계관과 윤리는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윤리는 그 자체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지평 안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서 9.11 테러사건이 정당한 행위인가의 여부를 따져 본다고 가정해 보자.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칼빈주의라는 세계관의 지평 안에서 판단하는 윤리학자와 마르크스주의라는 세계관의 지평 안에서 판단하는 윤리학자의 평가가 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무겁다는 성경의 원리를 중시하는 칼빈주의적 윤리학자의 관점에서는 모호하고 유토피아적인 정치적 대의를 위하여 수천명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정당한 행동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적인 사회구조의 형성을 위해서라면 한 개인의 목숨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윤리학자는 이 행위를 숭고한 행위로 높이 평가할 것이다.

생명윤리란?

이와 같은 세계관과 윤리의 관계 설정은 세계관과 생명윤리의 관계 설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생명윤리(bioethics)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행동의 옳고 그름 여부를 비판적으로 따져 보는 작업으로서, 생명윤리도 어떤 세계관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실제 문제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여기서 생명윤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주체들이 주로 의료인들

이었기 때문에 의료윤리(medical ethics)라고 명명했으나, 유전공학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의료인들 뿐만 아니라 동물학자, 식물학자, 수의학자, 화학자, 컴퓨터 공학자들까지도 생명을 다루는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의료윤리라는 용어로는 이 넓은 범주를 담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보다 포괄적인 명칭인 생명윤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의료인들 이외에도 생물학자들, 화학자들, 컴퓨터 공학자들까지

도 생명을 다루는 일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신체적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DNA의 성격에 기인한다. DNA의 차원에서는 인간과 다른 동물,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또한 생명의 기본단위가 모두 화학분자들임이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의 생명작용이 현존하는 어떤 컴퓨터 회로작용도 능가하는 극히 정교한 회로작용과 닮아 있다는 과학적 발견에 기인한다.

생명윤리란 주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

루는 분과이므로, 세계관 중에서도 특별히 생명윤리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인간관이다. 세계관을 협의로 정의하면 인간관이다. 인간은 어디에서 기원했으며, 역사 안에서 어떤 원리와 힘에 의하여 추동(推動)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등의 질문들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명윤리의 실제문제들에 대한 판단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 점은 II부와 III부에서 구체적인 실제문제



들을 다룰 때 명확해질 것이다. I부에서는 특히 기독교적 세계관의 중심으로서의 기독교적 인간관이 생명윤리의 총론적인 문제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의 방향을 결정짓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기독교적 인간관의 패러다임

기독교적 인간관은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창조-타락-구속의 패러다임이다. 다른 하나는 성육신-죽음-부활의 패러다임이

다. 전자는 세계와 인간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이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와 사역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이다. 이 두 패러다임은 서로 상응한다. 창조는 성육신에 상응하고, 타락은 죽음에 상응하고, 구속은 부활에 상응한다.

창조: 성육신

먼저 창조-성육신을 보자. 이 세계 안에 있는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인간이 생명을 다루는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탐구하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선한 창조물이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입으신 몸 곧 물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하나님은 인간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인간창조에서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동이 되며, 이는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가 자신의 혼을 담은 그림을 화랑에 전시해 놓고 그 옆에서 있는데, 어떤 관객이 그 그림을 보고는 그림이 형편없다고 비난하면서 칼로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행동이 화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도 화가는 실제로 자신의 영혼이 칼부림을 당하는 고통과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최고의 마음과 기술로써 인간이라는 극상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극상품을 합당한 이유 없이 파괴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파괴당하는 고통을 겪으실 것이다. 인간이 생명을 다루는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탐구하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인간의 생명을 죽이거나 왜곡시키거나 파괴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면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평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관점은 부당한 방식으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배아복제, 줄기세포추출, 시험관수정, 낙태, 사후피임약, 안락사, 자살 등에 대한 판단의 방향이 여하해야 하는가를 시사해 준다.

타락: 죽음

다음으로 타락-죽음을 보자. 인간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였고, 그 이후 이 세계 안에는 심각한 타락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의 결과로서 인간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찾아 왔다. 고통들 가운데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유래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심지어 죽음도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한 질병 때문에 찾아오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종 직전에는 질병의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게 된 가장 먼 원인은 인간의 타락이다. 질병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어느 한 사람이 범한 특정한 죄가 그 사람의 특정한 질병을 초래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과 자연의 상태가 왜곡되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왜곡이 증첩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결과로서 온갖 형태의 질병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질병이 죄의 결과로서 온 것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도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

질병: 죄와 죽음

기독교세계관의 패러다임에서 질병-죄-죽음은 양면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먼저 질병-죄-죽음은 죄의 결과이므로 극복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따라서 의료인을 포함하여 일군의 전문가들이 사람의 생명을

탐구하고 조작하는 목적은 질병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찾아온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바, 이 같은 행위는 죄로부터 세계 안에 찾아 온 악한 결과들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평 안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질병이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다. 이때는 하나님에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질병-고통-죽음 안에도 하나님이 두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질병-고통-죽음도 인간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인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을 쫓겨날 때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로이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별을 받았으나, 이런 조치들은 타락한 세상 안에서는 인간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은혜의 질서다.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할 때 정신도 분열되지 않고 건강하게 통일되며, 신체도 비만과 각종 성인병에 걸리지 않고 최적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자녀출산은 잉태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때 산모와 아기에게 모두 가장 유익하다. 질병과 고통은 극복되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질병은 인간으로 하여금 조심하

게 하고 자기 몸을 돌보게 하며 더 성숙한 정신을 갖게 한다. 이 세상에서 고통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선한 열매는 없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가장 겸손해지고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삶보다 월등히 나은 삶으로 들어가는 복된 관문이다.

구속: 부활

마지막으로 구속-부활을 보자. 죄로 인하여 찾아온 질병-고통-죽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원리적으로 극복되었으며, 역사의 마지막 날 신자들이 신령한 새 몸을 입을 때 완전히 극복될 것이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구속-부활은 질병-고통-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둘째로, 구속-부활은 이 노력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보여준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질병은 결코 완전히 극복될 수 없을 것이며, 질병치료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한시적인 성공에 불과할 뿐, 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신체적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마지막 날 신령한 새 몸을 입을 때에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이상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산하 기독교윤리연구소장이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사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